

광양시, 농업용 토착미생물 개발 성공

'지와이균' 특허 등록

식물병 억제·비료 효과 입증

내년부터 기술 이전·상용화

최근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새로운 토착미생물 연구개발에 성공해 화제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토착미생물 연구개발 사업 결과, 식물병 억제와 비료 효과를 지닌 '지와이균(Bacillus velezensis GY-15)'을 개발해 지난 11일 특허등록(등록번호 10-2718012)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광양시가 지역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우수 균주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민간기업 기술이전과 실증시험포 운영 등을 통해 지와이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전라남도·대학·연구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균주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양시의 토착미생물 연구사업으로 개발, 특허등록에 성공한 '지와이균'. <광양시 제공>

학·연구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균주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허등록된 지와이균은 광양시 친환경 유기재배토양에서 분리된 균주다. 이 균주는 애호박 균핵병·양상추 균핵병·고추 탄저병·토마토 시들음병·옥수수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식물병에 무처리 대비 평균 60%의 발생 억제 효과를 보였다.

또 지와이균은 강한 식물병원균 방제 활성뿐만 아니라 비료 가용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광양시 주요 재배작물에서 무 처리 대비 평균 20%의 생육 증진 효과가 입증돼 작물 생육 촉진 효과와 우수한 생물학적 방제 기능을 동시에 가진 복합 기능성 균주(식물병방제제)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농업용 미생물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보급과(061-797-3559)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훈 광양시 작물환경팀장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 부족으로 농업인들의 미생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면서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균주를 현장에 공급해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박차

집적화단지 민관협 2기 출범

전문가 위원 8명 구성 지원 업무

여수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 2기를 공식 출범하면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지난 18일 여수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민관협 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2기 민관협은 최정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전남도·여수시 등 정부위원(4명)·시의원(2명)·주민대표(7명)·지역·업종별 수협대표(10명)·공익위원(6명)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해상교통안전진단기관 등 8인을 전문가 위원으로 별도 구성해 ▲

송전계통 ▲해상교통 ▲이익공유 ▲주민갈등 등 분야별별 민관협을 지원한다. 이날 민관협은 산업부 전기사업허가 신청(3건)과 풍황계측기허가 신청(1건)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졌으며, 향후 민관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산업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2기 민관협의회가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고, 주민·어민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집적화단지 지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관협 1기는 여수시 연안을 3개 권역(남면·화정면·삼산면)으로 구분해 수산·해양 분야 전문가 등 총 40명으로 구성,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됐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산도 물도 사람도 붉게 물든다

26일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걷기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례군의 '제48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가 26일 개최된다.

지리산 피아골은 산과 물, 그 가운데 선 사람도 붉게 물드는 삼홍(三紅)으로 유명한 곳으로 매년 가을 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추진위원회는 행사장을 기존의 연곡사 대형주차장 대신 직전마을부터 삼홍소 일원까지로 새롭게 마련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축제는 오전 10시 표고막터에서 산신에게 군민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단풍제례'로

시작된다. 사전 공연으로 김소영 작家的 역동적인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색다른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산아래첫걸음' 앞에서는 가을 산길을 따라 펼쳐지는 '삼홍소 단풍길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100명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걷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는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단풍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수상작 및 우수작에는 24K 단풍 미니 골드바와 구례군 특산품이 주어진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숨겨진 보물 종이를 찾는 '단풍 보물찾기'도 함께 진행되어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멸종위기 철새 흑두루미 떼가 지난 20일 순천만에서 처음으로 관찰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 흑두루미 올해 첫 관찰... 지난해보다 8일 빨라

13마리 관찰 후 40마리 월동 시작

울타리 설치 등 안정적 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철새' 흑두루미가 올해 순천만에서 처음 관찰됐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흑두루미 13마리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8일 빠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흑두루미 떼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70여일 동안 2,500여km를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12마리 중 2마리는 어린 새로 파악됐다. 흑두루미 선발대는 어린 새를 돌보며 바람을 피해

갈대숲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시작했다.

다음 날인 21일 오전 7시에는 흑두루미 떼가 40마리까지 증가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대개 10월 중순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다. 현재 지구상에 1만6000~1만8000마리 정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순천만에서는 매년 8,00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흑두루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흑두루미영양단을 꾸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62ha)에 차량 불빛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철새 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시는 월동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안풍뜰 전밭대 15개를 제거해 환경 저해 시설 없는 흑두루미 서식지 20ha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도 흑두루미는 행운·행복·가족애를 상징하는 길조이다"면서 "순천을 찾은 모든 분이 순천만에서 흑두루미의 행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 갈대축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새 보고, 갈대 보고, 순천 보고'를 주제로 열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경찰서 최우수 경찰서 선정 대통령 표창

경찰청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

순천경찰서가 전국 '최우수 경찰서'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순천경찰서는 경찰청의 '2024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에서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위에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순천경찰청은 지난 21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이 치안성과 1위 관서에 부여되는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매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하는 '치안성과 우수관서'는 주요 치안정책·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수사역량강화 및 형사활동·안보수사활동·치안고객만족도·체감안전도 등을 평가해 선별된다.

이번 평가에서 순천경찰서는 객관적 평가와 심

사위원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또 순천경찰청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안심 공동체 및 범죄 예방 플랫폼 구축, 전화금융사기 예방 시스템 강화, 순천만 국제정원 박물관 성공개최 기여,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우수, 협력단체 및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치안 협조 체계 조성,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됐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대통령 표창 소감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런 치안성과 전국 1등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직원들과 순천경찰청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순천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곤한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31129-증-63255호